

잊고 싶으면 **무료** 을 끊으세요!



| 김상우 / YTN 경제부 차장

알코올 속에는 상처입은 영혼을

치료하거나 고통과 절망을 잊게하는

어떠한 성분도 들어있지 않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사람을 만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 달이 떠오르면 달무리에 가려져 있는 사람처럼. 말할까 말까, 보낼까 말까 쓰고 또 지우다 보면 어느 새 날이 새버려 하얗게 밤을 지새웠던 그 때, 그 추억이 생각나는 사람.

하다만 이야기를 가슴속에 깊게 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또 썼지만 차마 전하지는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만 기억들처럼. 잊기 위해 술을 마셨습니다. 폭음도 했습니다. 기억조차 힘든 그 사람과의 행적을 더듬어가면서.

최근 국립정신병원에서 만난 알코올 중독자도 이런 비슷한 유형에서 술을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원이었던 40대 김 모씨는 지난 96년부터 술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어 결국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최소 소주 5-6병, 술 깨면 마시고 말 그대로 술과 함께 살다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했습니다.

김씨가 이렇게 술고래가 된 이유는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실연 때문입니다. 김씨는 이렇게 술을 먹으면 안되겠다 싶어 다행히 자기 발로 정신병원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뷰 도중 내내 잠 안 올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어 보면 자기처럼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남녀 관계를 어찌 이랬다 저랬다며 외부에서들

마구 평가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도 토로했습니다.

또 약을 먹은 뒤 상처는 조금 나졌지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술에 의지하고 싶은 충동이 불꽃처럼 타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퇴원이 겁난다고 했습니다. 언제 다시 술병을 잡을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고 상담 받을 곳이 마땅치 않음은 물론입니다.

이유야 조금씩 다르지만 김씨처럼 늘 술을 대중 없이 고주망태로 마시는 사람이 우리 나라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음주도 남성 못지 않습니다. 두주불사형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몸담고 있는 언론계는 더 심하지요. 어떤 면에서는 낫술에서부터 폭탄주에 이르기까지 고주망태의 대명사일 것입니다. 의사 소통이 가장 잘 통할 것 같은 집단이면서도 사실은 정반대의 면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알코올 중독 초기를 판별하는 국제기준표에 따라 음주로 비난받은 적이 있는지 해장술을 마시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내적으로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나라 성인 절반은 술을 마시고 있으며 특히 이 가운데 20%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고주망태로 마셔대는 '알코올 중독 초기 유사자'입니다. 우리 사회가 '술마시는 사회, 술권하는 사회'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정신병원의 김씨 말처럼 술에 의존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본인의 영혼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대로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 초기 유사자'가 늘고, 이 가운데 여성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아직은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술은 권하지만 그 알코

올 속에는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진정한(?) 치료용 알코올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여가수의 노래말처럼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알코올 중독자는 치료가 어렵고, 또 치료가 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전문가 일부는 알코올 중독자 치료와 병행해서 이들을 종교로 이끄는 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나 봅니다. 절대 신 앞에 무릎 꿇은 환자들,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어떤 병도 제대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인가 봅니다.

잊고 싶은 것, 잊고 싶은 사람, 술로는 절대 잊어지지 않는다. 잊더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 잊고 싶은 것, 잊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것도 두손을 모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국립정신병원에서 만난 정신과 전문의는 알코올 중독을 포함해 우리 국민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이 30%가 넘는다며 이렇게 치료법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남자가 여자 보다 1.7배나 유병률이 높고, 연령별로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혹의 나이라는 40대에 유병률이 가장 높다면서 말입니다.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뜻하지 않는 사고, 뜻하지 않은 절망이 어느 날 예고없이 다가옵니다. 저와 가까운 몇 분이 몇 년전 일종의 정신착란을 일으켜 지금까지 계속 약을 복용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정상적인 생활로 이끈 데는 물론 좋은 선생님에 의한 좋은 약의 처방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을 무릎 꿇게 하면서 이들의 영혼을 치료해 준 인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술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약만도 아닙니다. 잊고 싶으면 무릎을 꿇으세요!

저는 그 전문의 선생님의 말이 또렷이 떠오릅니다. PPFK